

'2025 나주영산강축제' ... 시민이 만들고 모두가 즐겼다

10월 8~12일까지 역대 최다 관광객 52만여 명 발걸음 문화, 생태, 관광 융합으로 미래형 축제 모델 제시

'2025 나주영산강축제'가 지난 10월 12일, 5일간의 대장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2025 나주영산강축제'는 개막식 15만 인파를 포함해 5일 동안 총 52만여 명에 달하는 역대 최다 관광객 수를 기록하며 나주 축제 역사를 새롭게 썼다.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에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진행된 축제는 꽃내음 가득한 가을 정취와 더불어 풍성한 체험프로그램, 볼거리와 함께 자연을 연계한 통합 콘텐츠로 전국 각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 자리매김했다.

개막일과 폐막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드론라이

트쇼, 불꽃쇼가 더해지며 수많은 방문객이 몰렸고 마지막 날 진행된 '2025 나주마라톤대회'는 1만 2천여 명이 참가하면서 축제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2025 나주영산강축제'는 '나주농업페스타',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를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 진행하며 농업과 정원, 스포츠가 하나로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 세대 아우른 체험 콘텐츠, 가족 단위 큰 호응

이번 축제에서는 관람형 콘텐츠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보드게임 나들이'는 아이들과 청소년뿐 아니라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눈길까지 이끌어 축제장 내 새로운 명소가 떠올랐다.

어린이를 위한 직업 체험 '키자니아와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시 풍속 한마당', 20개 읍면동 주민이 함께한 '읍면동 화합의 장'은 시민 참여 열기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홍보관,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 스탬프투어 등 교육, 문화, 과학, 체험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

■ 5일간 나주 가을밤 수놓은 '영산강 뮤직 페스티벌'... 고품격 음악 향연

축제 기간 매일 밤 영산강을 무대로 펼쳐진 '영산강 뮤직 페스티벌'은 수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 무대에서는 트로

부터 뮤지컬, 클래식,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이 이어졌고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출연으로 매회 큰 화제를 모으며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개막 주제가수인 장차뮤지컬 '왕후, 장화',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공연,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한 뮤지컬 비소, 젊은 청년세대를 겨냥한 케이팝 콘서트, 모든 음악 장르가 어우러진 올버라이어뮤직, 박지현과 린이 장식한 폐막 축하공연까지 주무대 관객석은 물론 잔디광장까지 매일 밤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도기박물관, 도예전문가 배출 산실로 자리 잡아

도예전문가 출신 교육생 5명, 도자 공예기사 자격증 취득 영암도기박물관이 도예전문가 배출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물관의 도예전문가 출신 2명의 도예가들이 올해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도자공예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

도자공예기사 시험은 공예디자인, 도자기 재료, 도자기공예 등 3과목의 필기시험과 도자기 공예작업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고,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특히, 도기 제작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은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작업량 평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명을 정원으로 도예전문가반을 개설한 영암도기박물관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교육 수료생 중 제3회 도자공예기사 시험에 9명이 도전해 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러진 올해 제4회 시험에도 3명이

접수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합격자 중에는 지난해 필기 합격 후 실기를 준비해 온 교육생도 포함돼 영암도기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꾸준한 학습과 반복된 실습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5명의 도자공예기사를 배출하는 등 도예전문가반 교육 성과를 지역민과 공유하는 작품전을 오는 12월 개최한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도예전문가반에는 비전공자들이 참여한다. 체계적 교육과 훈련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뜻깊다. 지역민이 도자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도예에 관심 있는 영암군민에게 지속적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영암도기박물관은, 2025년에도 도예전문가반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강진군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 사회 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강진군은 총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2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 신축 사업은 모금회 매칭금 8천만 원을 포함해 군비 4천만 원, 지역 봉사단체 기부금 2천만 원, 연계모금 2천만 원 등 민·관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추진된다.

강진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신축 사업 최종 선정

신전·성전면 취약가정 2세대에 새집 선물 지역단체 온정 이어져

신전면의 주택 신축은 강진로타리클럽(회장 이경섭)이 추진하며 대상가구는 2인가구로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 종료 문제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마을 이장의 자발적인 토지 기부까지

더해져 주택 신축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성전면의 또 다른 대상 가구는 7인 다자녀 가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청소년 자녀의 사생활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가정의 주택 신축은 강진군 청록회(회장 박필용)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주거환경 개

선이 절실한 가정에 희망의 공간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주택 신축은 행정과 지역 단체, 기부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고흥군,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 개최

우주항공 분야 투자설명회·업무협약 등 비즈니스 기회 모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가운데 고흥의 미래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1부에서 고흥군 투자유치 홍보영상 상영, 업무협약(MOU) 체결, 전라남도·고흥군의 우주 및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투자 제안이 이뤄지고, 2부에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유

명 연사를 초빙해 고흥의 미래전략산업 비전을 발표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권 최대 성장 잠재력을 자랑하는 고흥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및 무인항공 영동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유치해 고흥군의 산업인프라와 전략적 입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는 전략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고흥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는 고흥군의 미래비전과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제4회 '마음:뜰' 축제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음뜰 축제는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 주관으로 2022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정신건강의 날 주간에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0월 1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리며,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화순군보건소, 화순군치매안심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순군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연령대별로 풍성한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양시, 2026년 신규시책 실행 가속화

시민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중심,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점검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10월 10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마지막 해를 준비하기 위한 시정 전략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8월 주요업무 보고회 이후 추가로 마련된 자리로,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규 시책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화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부서장과 국·소장이 배석하고 51개 부서가 총 101건의 신규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집중 검토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중

심으로 ▲실행 가능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재점검하고 ▲2026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준비를 수행하는 등 향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인화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실현가능한 정책을 선별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과 실행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며, 보고된 시책은 추가 검토를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만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햇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다. 공적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